# 나노융합 비즈니스 포럼 개최

제1차 나노융합 비즈니스 포럼이 6월2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나노융합 비즈니스 포럼은 국내 나노기술기업과 수요기업 사이의 협력의 장을 마련해 나노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기업 및 대학, 연구소 관계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럼은 이희국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이사장(LG 사장)과 한민구 서울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매년 4회 열릴 예정이다.

이희국 이사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세계 나노기술의 제품화 사례가 2005년 54개에서 2010년 1317개로 증가했으며 국내기업수도 2001년 70여개에서 최근 약 700개로 급증했다"며 세계 나노융합산업 시장이 2016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학저널 2012/06/26>*

Copyright ⓒ 1991 by CMRI